



비계 해체작업 중 단부로 추락



재해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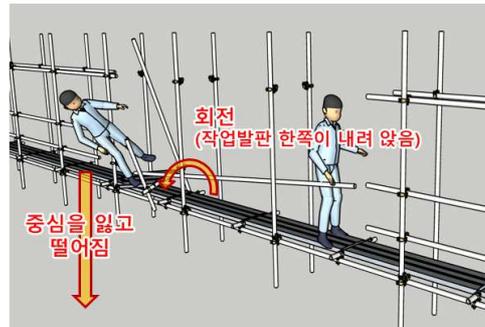
2024. 2. 24.(토) 8:42경 경북 문경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, 목창호 자재를 반입하기 위해 외부 강관비계를 해체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경사발판을 밟은 순간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떨어짐 (H≒11.7m)



발생원인

▶ 경사발판의 불안정한 구조

- (지지력 상실) 비계 해체 작업 진행에 따라 경사진 형태의 작업발판을 지지했었던 수평재(안전난간, 띠장)가 해체되어 지지력을 상실함.



▶ 추락 방지조치 미흡

- (안전대 부착설비) 비계 해체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선행하여 해체함에 따라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, 안전대를 착용 후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하는 등의 추락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조치가 미흡.

예방대책

1 비계 해체작업 시 추락 방지조치 철저

- 비계 해체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, 안전대 착용 및 체결 등 추락 방지조치 철저.

2 비계 해체작업 시 비계의 연결부 점검 및 보완 철저

- 비계 해체작업 시 발판과 비계 연결부에 대한 고정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비계를 제거하거나 보완하며 작업을 진행.

※ 본 D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